

2018학년도 서울 수학 합격 수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 응시해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걱정해주고 응원해 준 덕분인지 감사하게도 커트라인 점수에서 한 치의 오차 없는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이 합격 수기를 쓰기 위해 어떻게 하면 이 글을 읽으시는 예비 선생님들께 힘이 되어 줄 수 있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부족한 글 쓰는 능력이지만 양해를 바라고 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나는 왜 두 번의 실패를 했을까?

저는 세 번의 도전 끝에 최종 합격이라는 소중한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수확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는데요. 처음 시험을 볼 때는 학부생이었고 초수에 붙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였는지 인터넷 강의를 마음 편히 들었습니다. 어차피 초수에는 붙기 힘들니 시험장에 가서 뭐라도 적어낼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지요. 전공 강의 역시 어찌면 학부 때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지 회상하는 정도로 주의 깊게 공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상했던 대로 1차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탈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험장에서 답안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시험장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던 저의 첫 도전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1차 시험에서 떨어질 것을 알고 저는 바로 재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제는 마음먹고 제대로 공부해보자는 의미에서 전공 교재를 영역별로 두 권씩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모두 까맣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하루하루 책을 정독하며 연습문제를 풀었습니다. 초수 때에 비하면 성적 상승에 대해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답안을 작성할지 고민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강의를 듣고 복습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여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너무 힘든 집안 사정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격 수기 등을 보면서 일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고 합격했다는 글들을 모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웬지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고 스스로 수강료를 벌기 위해 학원에서 중고등부 수학 강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외도 2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집에 신세를 짓지 않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뿌듯함도 잠시 일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점점 저는 공부를 새벽과 이른 아침에 하고 낮 동안은 일에 치이게 되었습니다. 건강 상태는 크게 안 좋아졌고, 공부에 집중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죠. 또 당시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기에 제 답안지는 빈 곳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시험장을 빠져 나오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2. 두 번의 실패에서 얻게 된 소중한 경험

실패한 과정 속에서도 저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시험에 임하는 마음가짐, 둘째는 나의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노력(?)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길을 선택한 이상 모든 것을 진지하게 여겨야 하는데 나의 상황만을 보고 가볍게 여겼던 것에 많은 반성을 하였고, 또한 내가 일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다는 무모한 자신감에 불을 지핀 관련 합격 수기만을 선별해서 읽었다는 것이 나를 단순히 합리화하기 위한 장치일 뿐 나의 합격에 대한 의지를 높이

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도전에서는 임용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합격이라는 길을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해 로드맵을 짜기 시작했던 겁니다.

3. 세 번째의 도전은 왜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까?

저는 우선 인터넷 강의를 듣는 저의 모습을 반성했습니다. 강의에는 집중한다고 하지만 실제 옆에 있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인터넷 강의에서는 필기가 제공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필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말 그대로 감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듣지 않고 모든 강의를 직강으로 대체했습니다. 물론, 전 태련 교수님 강의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역할로 인해 인터넷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휴대폰을 아예 집에 놓고 학교 도서관에 가서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전공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점검했습니다. 내가 과연 영역별로 이해가 잘 되어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4용지에 영역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별로 구조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 상 구조화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수학도 충분히 구조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접근하는 저의 태도를 파악했습니다. 저는 대수학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대수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가지고 평가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본적인 내용 이해가 잘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찾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를 문제에서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기출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4. 1차 시험 이후 1차 발표 전까지

이 시기는 많은 분들이 2차 시험을 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들에 많이 흔들려 제대로 2차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봤자 2차 대비 강의를 듣는 정도가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소문에 흔들려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합격을 해서 다행이지만 만일 최종 합격을 받지 못했다면 저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큰 후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5. 1차 발표 후 2차 시험까지

1차 발표가 나왔을 때 너무 기뻐합니다.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처음으로 받아보는 합격이라는 문구가 저를 들뜨게 했거든요. 하지만 들뜸도 잠시 2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를 반성하며 남은 기간이라도 2차 준비를 어떻게 할지 구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량의 면접 자료와 시책, 지도서 내용은 저를 무섭게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때 1차 시험처럼 2차도 구조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면접 자료와 시책을 주제별로 구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화를 하면서 그 많은 분량의 자료는 제각기 알맞은 주제별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접 문제를 보더라도 문제의 주제가 어떤 것인지 떠오르게 되었고 그렇게 많은 양의 자료를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짧은 기간에 구조화 작업만 하더라도 학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1차 발표 전까지는 어쨌든 강의를 들으면서 2차에 대한 기본

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다큐, 서적을 보았습니다. 합격 수기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점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면접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면접을 잘 보기 위해 다큐나 서적을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사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할지 고민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꼭 빠져들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자세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2차가 강화되면서 변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문제를 어렵게 출제함으로써 변별을 높일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계에 부딪치게 됩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면 오히려 변별이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면접에서는 적당히 문제를 어렵게 하면서 정말 이 수험생이 교사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들이 출제된다면 확실히 교사의 외적인 측면만을 생각하는 사람과 교사 자체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업 시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해보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시연은 꼭 많이 해볼수록 좋습니다. 다만 조건은 스터디원이 시연에 대한 피드백을 올바르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고치면 좋을 것 같다는 식의 구체적인 피드백이 질 좋은 시연 스터디라고 봅니다. 그리고 2차 시연 준비를 해주는 강의를 보면 주로 학생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학생 중심의 참여형 수업이 강조가 되고 있는 현재이지만 모든 것을 학생의 참여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교사의 설명식 수업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참여형 수업에서 강조하는 것과 교사의 설명식 수업에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지 고민해볼 가치가 있게 되겠지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시연을 하신다면 학생 참여형의 수업과 교사의 설명식 수업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해보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또한 지도서도 학생 참여를 중시하는 지도서가 있고 반대로 교사의 설명과 좀 더 수학적 접근을 하는 지도서가 있으니 이 두 가지의 지도서를 참고하여 시연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나는 어떻게 공부했는가?

1) 교육학

수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교육학에 취약함을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교육학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공부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교육학 스터디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육사회학의 갈등이론 부분을 스터디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갈등이론이라고 말하자 다른 분이 갈등이론의 특징, 용어, 한계점 등을 책에 있는 활자 그대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저렇게 외웠다고 해서 쓸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특징까지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의 경우에는 실제 수업과 관련시켜 공부하였습니다.

2) 수학교육론

수학교육론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책에 나와 있는 목차를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엮는지를 확인하였고, 우선 책을 정독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독했습니다. 그렇게 4월까지의 계속 정독만 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책을 조금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한 권에는 노트를 두고,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요약한 노트에

다른 자료들에는 있지만 제가 본 책에는 없는 내용을 추가해서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론을 적용했는지 확인하였고 지도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이론을 구현했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본격 7월부터는 문제풀이에 들어가면서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시작되고 나서는 다시 정독한 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 정도 읽은 뒤에 전체적인 마인드맵을 작성하여 핵심적인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직화 하였습니다.

3) 전공수학(1) - 해석학, 복소해석학, 현대대수학

과거에는 해석학, 현대대수학, 위상수학이 Big 3 과목이라고 불리면서 큰 배점을 차지하다가 위상수학의 배점이 작아지고 복소해석학이나 확률통계가 배점이 올라갔습니다. 이 중에서 복소해석학의 문제 수준이 상승하면서 저는 해석학과 복소해석학, 현대대수학을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여 큰 그림에서 마인드맵을 작성하고, 마인드맵에 작성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은 주제들을 채워나가는 형식으로 기본 이론을 공부하였습니다. 증명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중요한 증명과정만을 따로 순서를 정하여 요약하니 증명도 한 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대수학의 경우 체(field) 부분이 내용의 연계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주요 개념 간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조금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학과 복소해석학은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명확히 구분지어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전공수학(2) - 정수론, 선형대수학, 이산수학, 확률통계, 미분기하학

흔히 서브과목이라고 불리는 이 영역들은 교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은 제일 먼저 기출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조화시키고, 어떤 개념을 물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기보다 계산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 계산에 익숙하셔야 합니다.

5) 전공수학(3) - 위상수학

위상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시험에서는 홀대받는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동안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배점은 4점 서술형 한 문제이어서 그냥 버리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4점이라는 점수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위상수학의 가장 기본은 열린 집합(open set)의 형태를 찾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열린 집합의 형태만 안다면 위상의 기본적인 여러 내용을 안다는 가정 하에 웬만한 위상수학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상수학을 공부할 때 기출문제와 다른 강사들의 문제를 가지고 열린 집합의 형태를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폐포(closure), 내부(interior), 외부(exterior), 경계(boundary), 연속성, 컴팩트성(compactness), 연결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6. 멘탈 관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 중 하나가 멘탈 관리라고 봅니다. 가족들과의 갈등, 친구와의 마찰, 슬럼프, 소문 등 다양한 원인이 멘탈을 흔들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것을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많이 이겨냈습니다. 저는 슬럼프가 딱

히 오지는 않았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회의감으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나의 고민을 진지하게 털어놓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방법이지만 모든 수험생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은 솔직한 나의 심정을 털어 놓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감정의 화풀이 대상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임용고시가 어려운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그 힘듦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인지 이제 막 시험을 시작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상담을 해주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기로 결심했고 이미 몇몇과는 이러한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힘든 것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려는 부담에서 멘탈이 흔들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7. 끝마치면서

다른 합격생들의 수기보다는 얻어가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어떤분의 수업을 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합격수기를 올리는 많은 분들의 공통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고유한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능력을 살리면서 합격의 길로 다가가기 위해 여러분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시험에서 떨어졌는지를(초수이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상담을 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뽑는 인원이 1명이 아니라 다수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합격하자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합격하자고 다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베푸는 삶을 실천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마음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어쩌면 슬럼프나 여러분이 느끼는 슬픔, 외로움이 덜할 것이라고 봅니다.

교사는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은 아닙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이끄는 사람인 교사가 되기 위해 베푸는 삶의 과정을 실천하시면서 최종 합격을 했을 때 많은 분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받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학년도 개인성적

1차 점수 : 72

2차 점수 : 지도안 12.17/15 실연 36.4/45 면접38.33/40